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 그 속과 겉

हतोरि 히데오

九州大学 : 名誉教授 | くまもと文学・歴史館 : 館長

조, 정민

釜山大学 : 教授 |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科 : 博士取得

石橋, 道秀

九州大学大学院比較社会文化研究科博士課程 : 単位取得退学

<https://hdl.handle.net/2324/1833807>

出版情報 : 2017

バージョン :

権利関係 :

제 10 장 히데요시의 출신

들어가며

“그 후로부터 방탕무뢰한 나쁜 소년은 친척을 비롯해 모두에게 버림받아 구제할 수도 없는 결석이 되었다. 가건물을 지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히닌(非人)¹이 된 것이다. 이들은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인연을 끊은 자들이다.”(미타무라 엔교(三田村鳶魚), 「셔타이지미테구루」(「世帯染みてくる²」, 전집 14권 p.132)

히데요시(도키치로藤吉郎)는 양부 치쿠아미(筑阿弥)와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와 방랑하고 있었다. 야하기가와(矢作川)에 정박한 배에서 자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히데요시는 미타무라가 말하는 ‘히닌(거리의 아이들)’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I 비천한 환경

1. 바늘장수

어린 시절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기노시타 도키치로(木下藤吉郎)는 비천한 환경 속에 있었다. 이시이 스스무(石井進)의 유작 『중세의 모습中世のかたち』(中央公論新社, 2002)은 이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역사서이다. 이 책의 겉표지 띠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젊은 시절 왜 ‘바늘’을 팔고 다녔을까”라고 쓰여 있다. 이시이는 젊은 날의 히데요시가 바늘을 팔았다는 것, 그리고 아내 ‘네(ね)’가 렌자쿠(행상인,連雀商人)의 딸이라는 것, 이 두 사실을 언급하며 바늘 장수와 행상인 모두 천대받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히데요시는 천시되던 사람들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소설이나 속설이 아닌 아카데미즘 차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발언이다.

이와 유사한 논점은 연구사에서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예를 들면 모리타 요시노리(盛田嘉徳) 『천민 이야기河原卷物』(法政大学出版局, 1978, p.107)에는 ‘줄병足輕·광대河原ノ者’를 병기한 「오닌키(応仁記)」를 인용하며 “당연히 공적을 세워 출세한 자도 있다. 도요토미 무사 가운데 중세 천민 출신 또는 그와 비슷한 무장들은 몇 명이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모리타의 저서에는 무장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히데요시에 대한 언급도 없다.

¹ 에도(江戸)시대 에타(穢多)와 더불어 천민 계급에 속했다.

² 이것은 편명이다. 살림꾼티가 나온다 라는 뜻.

일본사에 있어서 노부나가·히데요시 시대는 가장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시대였다. 무사 신분을 해체한 메이지(明治) 유신과도 필적할 만한 시기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신분 상승과 신분의 유동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되었지만, 일개 백성이 출세한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해 왔다. 만약 비천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위력과 권력을 쥐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대의 혼돈을 짐작하게 만드는 예라 할 수 있다.

바늘 장수에 대한 기사는 『다이코스조키太閤素性記』(『改訂史籍集覽』)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一. 다이코(太閤)는 덴분(天文) 20(1551)년 신해(辛亥) 봄, 16세의 나이로 고향 나카무라를 떠났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에이라쿠센(永樂錢) 일관을 유품으로 받고 이것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기요스(清洲)로 갔다. 질 나쁜 목면을 깎는데 쓰는 큰 바늘을 품에 지니고 나루미(鳴海)까지 와서 이 바늘을 먹을 것과 짚신으로 바꾸고 또 이 바늘로 여비를 충당하여 엔슈(遠州) 하마마쓰(浜松)까지 왔다. 그는 흰 목면 옷에 때가 묻은 옷을 입고 하마마쓰에서 떨어진 히구마(牽馬) 강변을 걷고 있었다.

히데요시는 에이라쿠센(永樂錢) 일관을 기요스로 가져 가 목면 바늘로 바꾸고, 나아가 나루미까지 가서 바늘을 먹을 것과 짚신으로 바꾸었으며, 이런 방법으로 여비를 마련해 하마마쓰까지 갔다. 에이라쿠센 일관이라면 동전 100개·10케미에 해당하므로 대단히 무거운 양이다. 이 때문에 바늘로 바꾸었던 것일까. 그러나 동전 1관에 상당(지금의 화폐 감각으로 말하자면 약 10만-15만 엔 정도)하는 바늘 역시 꽤 많은 양이므로 이를 운반하는 것도 고생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저 다른 물건(음식, 짚신)과 교환할 생각이라면 바늘로 먼저 바꾸지 않고 직접 돈과 교환하면 된다. 역방향인 기요스를 우회하지 않고 곧장 나루미를 목적지로 삼아도 되는 것이다. 히데요시는 왜 기요스까지 가서 동전 1관을 바늘로 바꾸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바늘 장수로 살아가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시이 씨는 바늘 장수가 차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바늘은 가볍고 가격도 싸다. 점포를 가지지 않고 길거리에서 팔아도 되고 방문 판매도

가능하다. 크게 별이가 되지는 않지만 하층 민중이 살아가기에 가장 손쉬운 직업이었을 것이다.

이시이 스스무石井進씨(1931-2001)는 필자(1949년 생)보다 20년 가까이 연장자이다. 한 세대 전의 연구자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늘 장수가 천민 계층에 속할 수 있다는 감각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필자는 규슈(九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귀나 눈에 장애가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 이들은 여행객들의 손을 잡고 안내 받으며 온다. 매년 같은 계절에 관음보살(절)이나 신사에 묵으러 찾아오는 것이다. 대부분 매번 오는 사람들이다. 시마군(志摩郡)이 새력 범위이었을 것이다. 노래를 부르거나 바늘을 팔거나 했다. 재봉용 바늘을 가지고 왔다. 우리들은 보통 바늘은 다른 방물 가게로부터 사지만, 그들이 오면 얼마간 사 주고 노래도 들곤 했다. 노래 솜씨는 좋았다. 항상 부르기 때문일 것이다. 듣기에 참 좋았다. 일종의 기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이 파는 바늘을 사 주었다. 불쌍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들을 히닌이라 불렀다. 히닌, 히닌이라고. 거지, 걸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일 전씩 주기도 했다. 일 전에 사탕 3개 정도는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돈으로 말하면 오십 엔이나 백 엔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후쿠오카현福岡県 시마군志摩郡 구와바라桑原·지금의 후쿠오카시福岡市 니시쿠西区)

2. 천민의 자식·결식

히데요시의 출생에 대해 동시대, 혹은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도요카가미豊鑑』(간에이寬永 8(1631)년은 다케나카 시게카도(竹中重門)의 작품인데, 여기에는 그의 아버지 한베에(半兵衛, 시게하루重治)의 구술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와리노쿠니(尾張国)에서 태어난 그는 천민의 자식이었다.

그는 천민의 아들이었고 아무도 그 부모의 이름을 몰랐다. 일족도 알 수 없었다.

위의 글에는 ‘천민’이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고, 부모의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거니와 일족도 마찬가지로 알 길이 없다고 되어 있다.

히데요시의 신분의 낮음은 요리토모(頼朝) 이래 혈통을 자랑하는 시마즈(島津) 씨의 문장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유서가 없는 자’, ‘내력을 알 길 없는 자’라고 재차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우와이카쿠젠닛키上井覺兼日記」 덴쇼(天正) 14(1582)년 1월 24일, 『島津家文書』 3-1436)

이 회답을 간파쿠에게 보내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정중한 방식으로 써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시바(羽柴, 히데요시)를 근본을 알 수 없는 자라고 말했다. 우리 시마즈 가문은 요리토모 혈통을 이어받은 훌륭한 가문이다. 때문에 하시바에 대한 편지를 간파쿠에게 보내는 것처럼 쓰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또한 이와 같이 근본 없는 자에게 간파쿠 대우를 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경솔한 일이다.

시마즈씨 문서에는 히데요시의 출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신분의 낮음은 강조하고 있다.

안코쿠지(安国寺) 승려 에케이(惠瓊)가 쓴 덴쇼 12(1584)년 정월 1일의 편지를 보자. “하시바는 지금이야말로 큰 인물이 되었지만 소싯적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결식이기도 했다.” 히데요시가 결식이었다는 소문은 역시 존재했던 것이다.

「다이라세이스기와라씨 온케이즈후겐平姓杉原氏御系図附言」은 후세의 기록이지만, 히지(日出)번주 기노시타(木下) 가문에 전해지는 사료이다. (『도요토미 일족의 모든 것豊臣一族のすべて』 1996, 新人物往來社) 여기에는 “히데요시의 신분의 천함을 못마땅하게 여겨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네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히데요시의 일가인 기노시타 가문의 정보이다. 네는 행상인 출신이었다. 이시이 씨는 이를 하층 계급이라 보았다. 네는 오다(織田) 가문의 무장이었던 아사노 마타에몬아내(淺野又右衛門)의 여동생(어머니의 여동생, 아사히朝日) 부부의 양녀가 되었다. 네는 일단 양자 결연을 통해 신분을 상승시켰던 것이다. 히데요시와 네를 비교했을 때 두 사람의 신분은 조화롭지 못했다. 히데요시의 신분은 주변으로부터 꽤 낮게 비추어지고 있었다.

3. 사루마네(猿まね) 예능

『기요스쵸시清洲町史』에는 히데요시의 출생지가 기요스라고 되어 있다. “기노시타 야에몬이 나카무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나카무라 출신이라고 할 뿐, 『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에는 기요스미소노(清洲御園) 출생이라고 되어 있다. 실은 어머니의 재혼때문에 오와리 나카무라로 옮겨 와 자랐다.”라고 되어 있다. 그 나카무라에서 도키치로(히데요시)는 의붓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해 부모 곁을 떠나게 된다. 친척들이 기요스과 그 주변에 조금은 남아 있었던 모양이지만 살갑게 보살펴 주는 이는 없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홀로 생활을 이어나갔을까. 거리를 헤매는 스트리트 칠드런이 되고 말았다. 『다이코스조키太閤素性記』를 보자.

“껍질도 까지 않은 밤을 꺼내어서는 이로 껍질을 까서 먹는다. 입모양이 원숭이와 같다.”고 묘사했다.

마쓰시타 가헤에(松下加兵衛)의 주군인 하마마쓰(浜松) 성주 이이오부젠(飯尾豊前)의 딸들 앞에서 히데요시는 밤을 먹는 원숭이를 연기했다. 『다이코스조키太閤素性記』의 필자, 쓰치야 토모사다(土屋知貞)의 조모야말로 이이오부젠노가미의 딸 기사(キサ)였다. 당사자의 증언이라면 이는 사실일 것이다.(오와다 데쓰오小和田哲男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 1985. 단 이 책은 나카나카무라 다이칸(中々村代官)의 증언 등, 여러 복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단순한 원숭이 흉내가 아니다. 원숭이와 꼭 같은 입모양으로 밤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다. 그는 평소에 용모가 원숭이와 닮아 있다는 말을 듣고는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착안한 예능일 것이다. 훗날까지 그 딸들의 기억에 남을 완벽한 예능이었다. 여흥, 숨은 장기의 영역을 넘어 이는 길거리 공연(예능)이었던 셈이다.

히데요시는 기요스에서 다른 지역 도토미(遠江)로 갔다. 마쓰시타 가헤에는 구노(久能)에서 하마마쓰로 가는 길에 이상한 사람을 발견했다. ‘원숭인가 하고 보니 사람, 사람인가 하고 보면 원숭이’였다. 바로 히데요시가 원숭이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이다. 하마마쓰 성까지 끌려간 그는 이이오부젠과 그의 딸들 앞에서 이와 같은 흉내를 냈다. 길에서 원숭이 흉내를 내는 공연을 하면서 방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재주를 부려 많은 양의 바늘을 팔며 생활을 이어나갔던 것이다.

원숭이를 부려 돈을 받는 사람, 사루히키(猿引)는 「단자에몬 유키쇼가키彈左衛門由緒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직종이다. 스스로 원숭이를 흉내 냈다면 사루히키라고 부르는 어렵지만, 이러한 재주로 돈을 벌었다면 ‘결식’과

마찬가지다. 길거리 공연을 생활의 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걸식이며, 히닌의 우두머리 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걸식을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배제되었다. 걸식을 할 수 있는 장소, 즉 걸장이란 사원이나 신사의 문 앞, 길거리 공연을 하기 쉬운 장소,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를 뜻하며 나아가 그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감찰(鑑札)을 가리킨다. 걸장(사찰 경내지 혹은 길거리)에서 생활의 수입을 얻는 자는 신분도 히닌으로 전락하지만 히닌 조직 가운데서 그 생활을 보장받았다. 제 1 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병환자가 히닌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만약 마쓰시타 가헤에가 히데요시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원숭이 흉내를 내며 구걸하는 방랑 걸인(히닌)인 채로 있어야 했을 것이다.

기요스에 도착한 히데요시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 길거리 공연은 거지와 동일시되고 있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히데요시는 기요스 겐카이(玄海)·걸식촌에 들어가 히닌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히데요시는 천민 태생은 아니지만 빈곤한 방랑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기간 걸식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임시적으로 빈곤자를 받아들였던 마을이 겐카이무라(玄海村)이며 따로 걸식촌도 있었다.(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 책의 p.553 참조.) 겐카이에는 걸식의 우두머리가 있었다. 아마도 옷돈과 같은 상납금을 내어야 했지만, 기요스 겐카이무라에 가면 작은 오두막을 얻을 수 있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굶어 죽지는 않았다. (우두머리에게 상납하는 형식의 걸식촌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미즈 세이이치清水精一 『대지에 산다大地に生きる』 참조.) 에도시대의 히닌(걸식)은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는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였다. 길거리 공연에서 성공하여 재력을 쌓으면 집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탈천(脫賤)이다. 기요스를 비롯하여 다른 곳에서도 원숭이 흉내를 내며 바늘에 부가가치를 붙여 팔았다.

독자들은 길거리 공연에 관한 익숙한 예를 떠올릴 것이다. 기름장수 사이토 도산(齋藤道三)은 동전 구멍에 기름을 붓는 묘기로 사람들을 모았다.(「미노쇼큐키美濃諸旧記」, 오와다 데쓰오小和田哲男 『전국무장戰国武将』 1981) 공통점이 매우 많은 이야기이다. 밤 껍질을 입으로 벗기는 원숭이 흉내뿐만 아니라 히데요시는 6 개의 손가락(육지증六指症)으로 사람들을 모았다.(이 책 p.571)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을 붙잡지 않으면 수입을 장담하기 어렵다. 원숭이 흉내를 잘 내는 젊은 바늘 장수는 영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마쓰시타 가헤에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II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 가 기록한 히데요시

1. 낡은 거적

예수회 신부 루이스 프로이스가 쓴 『일본사日本史』(*HISTORIA DE JAPAM*[History of Japan], Biblioteca Nacional-Lisboa 리스본 국립도서관, 1983)을 살펴보자.(프로이스의 책에 대해서는 마쓰다 기이치松田毅一·가와사키 모모타川崎桃太가 번역한 것을 참고하였고 브라질인 나시메이트 질베르트 씨의 도움을 받아 원문을 대조했다.) 프로이스는 히데요시에 대해 ‘매우 음울하고 비천한 집안에서 신분 상승했다’(1-8 장, p.193; segunda parte, C30, IV-p.222)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4장 p.149, 6장 p.176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 16 장 317 쪽(segunda parte, C53, IV-p.398)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미노(오와리를 잘못 인식한 것)의 가난한 백성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팔아 돈을 벌었다. 그는 당시의 일을 비밀로 할 수 없었다. 빈곤이 극에 달했을 때에는 낡은 거적 외에 몸에 두를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는 용감하고 영리했다. 후에 그는 미천한 일을 그만두고 미노의 성주에 의해 병사가 되었다. 그는 서서히 출세하여(소득과 평가가 높아져) 주목받기 시작했다.(중략) 그러나 그는 원래 하층 계급 (baixo sangue)이었다. 주요한 무장들과 함께 이동할 때, 다른 귀족들은 모두 말을 탔지만 그만큼은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다.”

거적을 몸에 걸치고 있었다면 말 그대로 비렁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걸식에게 있어서 명석, 거적은 반드시 필요한 침구이자 방한용품이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히데요시는 걸인의 생활을 보냈던 것이 분명하다.

2. 프로이스 기술의 진실성-손가락이 여섯 개이던 히데요시

프로이스의 『일본사』의 신빙성에 대해 말해 두고자 한다. 프로이스의 기술 가운데는 일본사 연구자가 그다지 알지 못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종래에는 연구자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의심하는 경향이 강했다. 예를 들면 프로이스는

히데요시가 한 쪽 손에 여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chap.16, p.317; HISTORIA DE JAPAM, segunda parte, C, 53, IV-p.398)

여섯 손가락. 틀림없이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독자가 많을 것이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마쓰다·가와사키 번역본, 1977년 판(1978년 판, 제4판도 같다)의 역자 주를 보면 ‘사실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프로이스가 왜 이렇게 바보스러운 기사를 쓰게 되었을까. 이는 대단히 큰 결점이다’하고 명기되어 있다. 나아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이스와 일체된 듯이 번역했던 역자들이었지만 그러한 평가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4년 뒤에 출판된 보급판(1981년)에서 역자들은 그 사실을 정정하며 평가를 역전시켰다.(p.317 주 5) 이미 오래 전 미카미 산지(三上参次)가 ‘호타이코(豊太閤, 히데요시에 대한 경칭)에 대하여’라는 논고에 소개한 바 있고(『아즈치모모야마 시대사론安土桃山時代史論』 1915, p.168. 미카미는 게이오(慶応)원년에 태어나 1939년에 사망),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의 전기인 「고쿠소유이곤國祖遺言」(金沢市立図書館, 加越能文庫)에서도 히데요시는 여섯 손가락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부 역사가들의 문헌을 참고한 역자들은 히데요시의 오른 손이 여섯 손가락이었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주 내용을 수정한 것 같다.

다이코사마는 오른쪽 손에 엄지손가락이 하나 많았다. 손가락이 여섯 개였다. 가모 우지사토(蒲生氏郷), 가와지리 히데타카(河尻秀隆), 가나모리 나가치카(金森長近) 세 사람은 마에다 도시이에에게 가지 않고 쥬라쿠(聚樂)성의 거실 옆 4첩 반 다다미에 둘러앉아 밤늦게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때 다이코사마만큼 벼슬 높은 분이 젊었을 때 6번째 손가락을 자를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노부나가는 다이코사마를 별명 ‘무쓰메(六つ目, 여섯 번째)’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쿄대학 사료편찬소 사진첩 18)

오다 노부나가는 여섯 손가락을 가진 히데요시를 ‘여섯 번째’라는 뜻을 가진 ‘무쓰메(六つ目)’라 불렀다 한다. 히데요시는 덴쇼 15(1587)년 50세가 될 때까지 여섯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자르지 않았다.

정보의 증가로 지금은 일본인의 다지다지증(多指多趾症) 원인이 밝혀졌다. 일정 확률상 그러한 아이가 태어나지만 손은 어릴 때 수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리는 눈에 띄지 않지만 의외로 많다. 필자의 지인 중 O 씨는 그러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며, 다지자(多趾者) 모임이 있다고도 했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가운데는 여섯 손가락을 가진 아들의 출생이 하나의 테마로 등장한다.(江川卓『謎とき「カラマゾフの兄弟」』新潮選書) 기독교 신자, 종교가가 다지증 아이를 보는 감각은 이 소설에서도 읽을 수 있다. 프로이스는 히데요시가 무언가 큰 죄를 짊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미카미 산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리 정확하게 기술한 서적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하고 말하며, 히데요시가 여섯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적으로 기술했다. 미카미, 마쓰다·가와사키 등은 모두 다지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그에 관한 사실을 보완해 주는 사료에 대해 알지 못했다. 마에다 도시이에의 기술과 프로이스의 기술이 각각 독립된 사료로 취급되었을 때에는 그 신빙성이 의심되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의 증언이 복수로 존재하는 이상, 의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 손가락이었던 히데요시는 길거리 공연에서 그것을 활용했는지도 모른다.

400 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자들이 접하는 정보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며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복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이 부족한 채로 동시대인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학문의 자살행위이다. 이 책은 제보자이자 동시대이기도 한 프로이스의 기술을 일등 사료로 보고 사료비판에 입각하면서도 기술된 내용을 최우선시하여 사실(史實)을 확정해 나가고자 한다.

3. 살해된 히데요시의 남동생과 여동생

여기에서 다시 프로이스의 『일본사日本史』의 기술을 살펴보자. 간파쿠(히데요시)가 교토로 출발하기 수일 전인 덴쇼 15(1587)년 정월 초순 경, 멋지게 차려 입은 귀족 이 삼십 명을 거느리고 어느 젊은이가 이세왕국(伊勢王国)에서 찾아왔다. 그 젊은이는 간파쿠의 형제라고 했다. 그 젊은이를 아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간파쿠의 동생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히데요시는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저급한 피를 가진 자였다. 친척일족은 농업이나 어업, 그 외에 그와 비슷한 산업(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일부 친척들은 간파쿠가 힘과 자존심이 세며 큰 존엄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고통스러운 가난과 낮은 지위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생활과 명예를 받기 위해 간파쿠로부터 초대되는 자(이세에서 온 젊은이들이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도 있었다.(마쓰다·가와사키의 번역에 의하면 스기하라 이에쓰구(杉原家次)나 미요시 히데쓰구(三好秀次)를 말한다.)

간파쿠는 자만심과 존대함, 그리고 경멸하는 태도로 그 남자(이세의 젊은이)가 자신의 형제인지 아닌지를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워 마치 인간인 것을 부정하듯이 ‘그러한 자를 낳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실을 고백해야 했지만) 제우스(Zeus)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의 정의도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히데요시는 당장에 그 젊은이를, 그리고 함께 온 자들을 포박하게 하여 자신의 앞으로 데리고 와 목을 베었다. 목은 꼬챙이에 끼워 교토 길거리에 두었다. 간파쿠는 자신의 육친조자(자신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용서하지 않았다.

3, 4 개월이 지난 후, 간파쿠는 오와리왕국(尾張王國)에 다른 누이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가난한 농민(경작자)였다. 간파쿠는 누이동생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만 같은 피를 나눈 자들의 신분의 낮음(자신의 혈통이 비천하다는 것)을 숨기려 했다. 그는 누이동생들에게 명예와 행복을 주겠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녀들로 하여금 교토로 오게 했다. 누이동생들이 교토에 도착하자마자 간파쿠는 냉혹하고 잔혹하게 목을 쳐 버렸다. 처음부터 그는 누이동생들을 배신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덴쇼 15(1587)년이라면 히데요시의 나이도 선을 넘겼을 무렵이니, 젊은이라면 남동생과 여동생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프로이스의 말에 따르면 히데요시에게는 남동생 히데나가(秀長)와 누이 닛슈(日秀, 히데쓰구의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아사히히메(旭姬) 이외에도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다. 히데요시의 어머니 오만도코로(大政所, 섭정 간파쿠의 어머니에 대한 경칭) 나카(なか)의 경우에도 결혼을 세 번 이상이나 하여(물론 그 가운데는 결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숨기고 싶은 아들(이세에서 온 젊은이)이 있었겠지만, 이 아들은 어머니의 과거와 히데요시의 출생을 숨기기 위해 목숨이 희생된 것이다. 자신의 육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을 살해했다는 것은 지금의 눈으로 봐도 이상하다. 아마 어머니 오만도코로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던 것 같다. 프로이스의 문장을 많이 인용한 역사학자 구와타 다다치카(桑田忠親)도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독교 탄압을 시작한

히데요시의 냉혹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이스가 허구로 만든 이야기라고 치부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목살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의 서자라고 주장한 텐이치보(天一坊)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다. 요시무네는 장군은커녕 와카야마 번주(和歌山藩主)도 되지 못할 정도의 남자였다. 자유롭게 지내던 젊은 날에 숨겨둔 아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지만, 아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히데요시의 어머니는 남자 운이 없었다. 모자 모두 극빈했고 알려저서는 곤란한 정도의 생활도 경험했다. 히데요시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Ⅲ 히데요시 일가와 행상인

1. 아버지가 없었던 히데요시

『도요카가미豊鑑』는 히데요시의 부모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다. 히데요시의 아버지는 기노시타 야에몬(木下弥右衛門)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감각은 동시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와타나베 요스케(渡辺世祐) 『호타이코의 사적생활豊太閤の私的生活』(1939)에 의하면 오래 전부터 히데요시 사생아 설은 존재하고 있었다. 『비슈시라쿠尾州志略』, 『헤이호쇼세쓰平豊小説』이 바로 그것으로, 전자는 지방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고 후자는 아버지가 보다이지(菩提寺)를 건립하지 않은 것과 증관(贈官, 사후에 내리는 벼슬), 추복(追福, 사자의 명복을 비는 일)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와타나베는 이를 단순한 상상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절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히데요시는 어머니나 아내의 친척을 부장(部將, 한 부대의 장)으로 많이 두었다. 예를 들면 고이데 히데마사(小出秀政)는 어머니 쪽 숙부였다. 동향 오와리 나카무라 출신인 아내는 히데요시의 숙모(어머니의 여동생)이다(『간세이쇼슈쇼카후寛政重修諸家譜』 히데마사 항목에는 히데마사가 히데요시의 숙모와 결혼했다고 되어 있다). 역시 나카무라 출신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는 그 어머니가 히데요시의 어머니와 종자매였다. 아마노 사다카게(天野貞景)의 『시오지리塩尻』를 보면, 고다이인하하(高台院母, 네의 어머니) 아사히노쓰보네(朝日局, 기노시타 이에토시木下家利의 딸)는 오타니규부요시타카(大谷刑部吉隆) 어머니 히가시(東)의

백모였다는 기술이 있다(『오와리준코키尾張徇行記』 아시히무라朝日村). 오다니 요시쓰구(大谷吉継)도 스기하라(기노시타) 일족에 포함되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의 친척(가토加藤, 고이데小出)이나 아내의 친척(스기하라, 기노시타, 아사노, 오타니)은 적극적으로 발탁하였다.(히데마사秀政의 어머니는 ‘도라とら’라는 이름이었고 그녀에게 보낸 히데요시의 서간은 『다이코쇼신太閤書信』 124, p.296 참조.) 그러나 아버지 쪽 친척은 등장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는 선교사 보고에 ‘히데요시의 조카’로 등장한다. 즉 게이쵸(慶長) 9(1604)년 예수회 년보(『16,7 세기 예수회 일본 보고집一六・七世紀イエズス会日本報告集』 제 1 기 4 권)에 ‘다이코사마의 조카로서 2 개 나라의 수호인 후쿠시마의 희망에 따라’라는 구절이 있고, 프로이스의 『일본사』 1 권에도 ‘히데요시의 조카는 Yyo 나라 영토 받을 가진 주군’이었다고 되어 있다.

또 프로이스의 같은 책 C, 80, V-p.608・1593 년(분로쿠文祿 2 년)에 ‘노인 산가도노(三箇殿)Sangandono 의 아들, 만시오(Mancio, 라이렌賴連)는 먼저 Hio 나라에서 간과쿠의 조카 한 사람과 같이 있었다. 조카는 잔혹한 사람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고려에서 만시오를 죽이려 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마쓰다・가와사키 번역에는 2-45 장)

Yyo 와 Hio 는 이요노구니(伊予国)의 다른 표기로 포르투갈어에는 H 음이 발음되지 않는다. 덴쇼 15(1587)년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이요노구니의 반쪽인 11 만 3 천 석의 영주였고 세키가하라 전투(関ヶ原の戦い) 뒤에는 아키(安芸)・빈고(備後) 50 만 석을 가졌기 때문에 1604 년(게이쵸慶長 9 년)에는 분명히 두 나라의 영주였다. 때문에 기술은 매우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핫도리 히데오服部英雄 ‘프로이스 『일본사』 V-80 장: 마쓰다 기이치・가와사키 모모타의 번역 검증 <https://qir.kyushu-u.ac.jp/dspace/handle/2324/18350> 참조.) 그러나 조카, 즉 히데요시의 매제 여동생의 아들에 해당하는 이가 없으므로 종자매, 종형제의 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마사노리의 그림(마사노리의 가신 가미쓰키분에몬(上月文右衛門) 필, 묘신지가이후쿠인(妙心寺海福) 소장)에 대해 묘신지(妙心寺)의 승려 레이난(嶺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다이코의 친척으로 어린 나이에도

무를 가지고 공을 세웠으며……”, “도요토미 벌열이자 비요(尾陽, 오와리) 출생’이라고 되어 있다. 『간세이초슈쇼카후寬政重修諸家譜』에는 마사노리의 어머니는 히데요시의 백모 기노시타 씨 호카(ほか)라고도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친척이나 아내의 친척은 중용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쪽 친척으로는 달리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아버지가 세웠다고 하는 보다이지(菩提寺)도 없다. 이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히데요시의 일가가 히데요시에게 연줄을 찾으려고 한 것은 프로이스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이 책 p.574) 아버지 쪽 백부나 숙부, 종형제들이 있었다라면 관직을 희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친척도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다시 와타나베 요스케(渡辺世祐)가 인용한 문헌을 살펴보자.

『비슈시랴쿠尾州志略』: 하치스카(蜂須賀) 마을의 렌게지(蓮華寺) 절에 승려가 있었다. 그는 여자를 밀통³하여 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나카무라 마을의 치쿠아미(筑阿弥)와 결혼한 자로, 아이는 덴몬 5년 봄 나카무라에서 태어났다. 이 아이가 바로 히데요시이다.

『헤이호쇼세쓰平豊小説』: 히데요시의 아버지는 알 수 없다. 히데요시가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는 기노시타 야에몬과 결혼했다. 야에몬이 곧 죽고 나자 그녀는 근처 마을의 치쿠아미와 재혼했다. 치쿠아미는 오다(織田) 가문의 다도(茶道) 일을 맡아보던 자였다. 따라서 야에몬은 히데요시의 계부이며 치쿠아미도 한시적으로 계부였다.

와타나베는 사료가 후세에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어디까지 신용해야 좋을지 의문스럽다’, ‘오로지 상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프로이스의 기술과는 부합되는 점이 많다. 오만도코로(히데요시 어머니)는 기노시타 야우에몬 내지는 치쿠아미와 접촉하기 이전에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비슈시랴쿠尾州志略』에는 렌게지(蓮華寺)의 승려라고 되어 있다.)

기노시타 야우에몬도 히데요시의 의부였던 것 같다. 『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는 아버지를 비슈 하사마무라(尾州 八サマ村, 甚目寺町廻間)에서 태어난 치쿠아미(竹アミ,

³ 부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 성교위를 하는 것. 사통.

筑阿弥)라고 하고, 히데요시의 유년시절 이름을 고치쿠(小竹)라고 했다. 이 점은 『다이코키太閤記』에도 마찬가지다. 히데요시의 어릴 적 이름을 히요시(日吉)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노부나가는 한동안 히데요시를 고치구(小筑)라고 불렀다고 한다.(『다이코스조키太閤素性記』에는 히데요시의 유년시절 이름은 히요시마루(日吉丸)이며, 의부는 치쿠아미(竹アミ)이고 고치쿠(小竹)는 히데나가(秀長)라고 말하고 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의부는 바로 치쿠아미이며, 적어도 히데요시에게 아버지로 여겨지는 존경할 만한 인물은 없었다. 야우에몬은 히데요시와는 거의 무관한 인물이었다. 후세에 조작된 인물일지도 모른다. 히데요시에게 아버지는 없었다. 치쿠아미에게 성(姓)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도 성이 없었다.

기노시타라는 성은 네(寧)와 결혼한 후에 생긴 것이라는 견해는 와타나베 요스케(渡辺世祐)의 『호타이코의 사적생활豊太閤の私的生活』에도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행상인이었던 네 일족 스키하라(杉原)가 처음부터 기노시타라는 성을 쓰지는 않았다. ‘도요토미’라는 성은 겐페이토우키즈(源平藤橘)의 성씨하사처럼 천황에게 새로운 성으로 하사받은 것이었다. 하시바(羽柴) 성은 상사인 니와(丹羽)·시바타(柴田)로부터 한 자씩 받은 것이다. 히데요시는 항상 윗사람으로부터 성을 받았다. 우에다 아키나리(上田秋成) 『단다이쇼신로쿠胆大小心録』(岩波文庫 日本古典文学大系『上田秋成集』 p.330)에는 “주군인 마쓰시타(松下)를 선망하여 마쓰, 즉 한자 松 부분의 오른쪽을 없애 기노시타라 부르기도 했다”고 되어 있다. 기노시타라는 성은 주인인 마쓰시타 가헤이(松下加兵衛)의 ‘마쓰(松)’에서 오른쪽 편을 제외한 木, 거기에 下를 붙인 것이었다.(오카다 아키오岡田章雄 『인물·일본의 역사人物・日本の歴史』(1965), 와타나베 요스케 『호타이코의 사적생활(豊太閤の私的生活)』(1939)에도 유사한 견해가 있음.) 히데요시는 마쓰시타 가헤이에 대한 은의를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 자신의 성공과 거의 동시에 영토 지배권을 주었다. 발상은 언제나 비슷했다.

네(寧)가 양녀로 들어간 아사노(浅野)의 가문은 오다 가문 중의 활 부대에 소속된 사무라이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이 있었다. 나가하마(長浜)시대에도 아사노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다이코스조키太閤素性記』改訂史籍集覽 p.312 에는 津島の住라고 되어 있다. 보통 아사노는 지금의 一宮市浅野이며 사적史跡 공원화되어 있다.)

2. 히데요시 일가 : 행상인, 기요스(清須)의 시치로자에몬(七郎左衛門, 스기하라 이에쓰구杉原家次)

『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 『기요스오키나모노가타리清須翁物語』는 네(寧)가 행상인 스기하라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

기요스(清須)에 시치로자에몬(七郎左衛門)이라는 행상이 있었다. 그는 도키치로(히데요시)에게 호의를 베풀었고(중략) 후에 자신이 스기하라 호우키(杉原伯耆)라고 말했다.

인용을 생략한 곳은 처음에 히데요시가 시치로자에몬을 주인인양 정중하게 대했다는 것, 그리고 칠천 석 가운데 칠백 석을 시치로자에몬에게 주고 장래에 어떠한 다이묘가 되어도 10 분의 1 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노신(오토나, 乙名)으로 대우했다고 적혀 있다.(나가하마 성 시대에 관해서는 이 책 p.665 참고.)

행상이란 물건을 지게 같은 것을 지고 팔러 다니는 것을 말한다. 또 그러한 지게를 일본어로 렌자쿠(連雀, 참새)라고 하는데, 이는 기렌자쿠(キレンジャク), 히렌자쿠(ヒレンジャク)라는 새 이름에서 유래한 것 같다. 야나기다 쿠니오의 『종합일본민속어휘綜合日本民俗語彙』를 보면, 지게를 지었을 때 ‘양쪽 끝에 두 개의 다리가 길게 뻗힌 형상이 렌자쿠(連雀)라는 참새와 닮아 있기 때문에’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시이 스스무(石井進)가 쓴 『중세의 형태中世のかたち』에서는 행상이 차별받던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이미지가 생긴 이유 중 하나는 교겐(狂言) 상연 목록 가운데 렌자쿠(連尺)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시장 개설 광경을 방불케 한다.

행상 : 여기에 등장한 자는 근처에 거주하는 행상이다. 세상이 평온하고 천하가 태평하다. 나라의 수많은 시장 가운데서도 돈과 명예를 쌓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상점을 열면 후대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몇 월 며칠에 시장을 개설한다. 시장에 처음 도착하여 상점을 연 자에게는 후대까지 하급관리인 것을 인정하자.”(다른 책에서 하급관리를 히토쓰카사(一司)라고 함. 이시이 씨에 따르면 ‘영업세 면제, 시장 관리’ 등의 혜택이 있음.) 그러한 법령을 보고 심야에 먼저 여자 상인이 나타난다. 여자가 한 숨 자고 있는 사이에 행상이 나타나 여자의 짐을 치우고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한다.

행상은 ‘자신이야말로 새로 생긴 장에 가장 먼저 왔다고 주장하며, 권리를 얻으면 행상을 그만두고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이 되어 비단이나 면을 파는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여자 상인이 파는 물건은 떡(이즈미류和泉流)이나 술(오쿠라류大蔵流)이다. 그에 반해 행상이 파는 것은 비단과 포목이지만, 여자 상인으로부터 ‘비단, 포목은 한 폭의 천이요, 등에 지고 있는 것은 방물이나 다시마 조각’이라며 비난받기도 했다.

역사학자 도요타 타케시(豊田武) 씨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세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인’이란 행상인이며 초닌(町人)은 점포를 가진 상인을 말한다. 이시이 씨는 이 견해에 따르며 행상인 렌자쿠 상인의 신분은 낮다고 규정했다.

이시이 스스무 씨의 『중세의 형태』에서 증시되었던 사료는 그 외에도 ‘렌자쿠의 대사(連積の大事)’가 있다. 여기에 묘사된 행상인들은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렌자쿠 상인에 가까운 존재였을 것이다. 거기에는 염색업자, 무기상을 비롯하여 걸식(좁고 긴 판자에 불경이나 계명을 써서 강에 흘려보내거나 경을 읽거나 하며 금품을 얻어 다니는 걸식), 소경(샤미센을 타거나 노래를 부르며 구걸하는 소경), 유녀, 우산장수, 남장 유녀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외에도 『조간세이요카쿠시키키모쿠貞觀政要格式目』(사후 불교식 계명을 지어주기 위한 책)에 보이는 렌자쿠 가운데는 짚신장수, 나병환자, 마소의 병을 고치는 사람, 도선장 짐꾼, 산지기, 유녀, 필공, 목 제조자 등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천시당했다고 한다.

단, 이시이 씨도 인용하고 있는 선행 논고 이토 야노스케(伊東弥之助)의 「連雀町・連雀座・連雀商人」(『三田学会雑誌』 39-6, 1946) 가운데는 이들의 이미지가 특권 상인으로 서술되어 있다. 성관을 중심으로 발달한 시가지 중심부에는 렌자쿠초(連雀町)가 있었다. ‘렌자쿠의 대사(連積の大事)’, 『조간세이요카쿠시키키모쿠貞觀政要格式目』도 흥미로운 서적이지만, 이는 역사가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사료이기도 하다. 정확한 동시대 사료의 이미지를 먼저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고문서에 등장하는 특권상인, 렌자쿠 상인의 모습을 확인해 두자.

3. 고문서에 나타난 렌자쿠 상인

렌자쿠 상인에 관련된 고문서는 복수로 존재한다. 다케다(武田) 영토(겐키元龜 4(1573)년 외), 고후조씨(後北条氏)·무사시 이와쓰키(武蔵岩槻) 영토(에이로쿠永祿 3(1560)년, 덴쇼 4(1576)년, 가와고에(川越) 영토(덴쇼 19(1591)년), 마쓰야마(松山) 영토(덴쇼 12(1584)년)등이다.

이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장 비과세 방안, 즉 규제 완화 정책이 적용되어 새로운 시장 개설에 있어서는 신흥 세력도 렌자쿠 우두머리와 같은 자치 조직의 강력한 통치자를 필요로 하여 유치, 우대하였다는 것이다.

문헌에서 확인하는 한, 렌자쿠 상인들은 집단을 이루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다이묘 권력의 보호를 받아 새로운 시장의 한 부분을 점유하는 등 유리한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말하자면 다이묘에 직결된 신흥 상인단체였던 것이다.

렌자쿠초(連雀町)라는 지명은 동 일본에 많이 남아 있다. 대부분이 오오테마에(大手前) 등 시가지(城下) 중심에 있다. (오카자키(岡崎), 하마마츠(浜松, 가케가와(掛川), 마에바시(前橋), 다카사키(高崎) 등 다수). 에도(江戸)의 간다렌자쿠초(神田連雀町, 후일 미타카三鷹로 이전)는 에도 성 문과 가까웠다. 시장과 근접한 장소에 특권상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십일장, 오일장의 장날 등, 장으로 매일매일 걸어서 이동하는 행상인들의 상품은 가벼운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사찰 경내나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다. 쌀과 술 같은 목직한 것은 행상에는 그다지 맞지 않다. 때문에 시장 안 상설 점포에서 쌀과 술을 판매했다. 쌀과 술은 생산지인 농촌에서는 팔리지 않았고 도시에서만 팔렸다. 교겐 렌자쿠에는 여자 상인이 떡과 술을 취급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자 ‘상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초년과 같은 유형으로, 아마 다른 곳에도 가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렌자쿠 상인들은 가게를 가지지 않는다.

신흥 상인가운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가게를 가질 수 없었고, 가게를 가진 초년에게 낮추어 보이고 있었다. 교겐 렌자쿠는 그 이미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신흥 상인은 신흥 무사와 결탁하여 급성장했다. 다이묘도 상인도 모두 대부분은 천한 신분 출신이었다.

이마가와(今川) 영토에는 렌자쿠 상인이 거점을 가지면서도 각지에 행상하던 모습을 전하는 7 조 문서가 남아 있다. 전국 다이묘와 피혁 상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료로서 부락 연구 상에서 유명한 덴분(天文) 13(1544)년의 사료가 있다.

훈피(薰皮)·모피(毛皮)·활혁(滑革) 등, 렌자쿠 상인들은 다른 지역에 이러한 가죽을 팔았다고 한다.

초년이 가죽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짐 속에 감추고 있으면 보고하십시오.

가죽을 유출하지 않을 것이다.

덴분(天文) 13년 갑진 4월 27일

오오이 가몬노조도노大井掃部丞殿

(『静岡県史資料編』 8 中世三、七条文書・一六七九号)

위의 글에는 가죽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덴분 13(1544)년 이마가와 씨(今川氏)가 오이 가몬노조(大井掃部丞)에 대해 렌자쿠 상인이 다른 지방에서 훈피 외 모피·유피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이에이(大永) 6(1526)년 6월 12일 이마가와우지치카(今川氏親) 주인장(朱印状)에는 가와타(かわた, 皮多) 히코하치(彦八)에게 가와하라 신야시키(川原新屋敷)를 주고 가죽 취급 임무를 명하고 있다(『静岡県史資料編』 8-920). 교로쿠(享祿) 1(1528)년 10월 28일에도 역시 히코하치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증하는 동시에 급하게 필요한 가죽에 대해서는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조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静岡県史資料編』 8-1025). 위의 두 주인장을 받을 사람은 모두 오오이 신에몬노조(大井新右衛門尉)였다. 오오이 가몬노조(大井掃部丞)는 신에몬노조의 후계자일 가능성이 있다. 오오이 가몬노조는 가와타 우두머리(히코하치이거나 그 계승자)에 대한 명령권(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자 동시에 렌자쿠 상인에 대한 강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렌자쿠 상인, 가와타 우두머리 모두 오오이(大井) 지배하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기요스의 렌자쿠 상인이자 히테요시 백부였던 시치로자에몬, 즉 스기하라 이에쓰구(杉原家次)의 지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겐키(元龜) 덴쇼(天正)시기의 오와리(尾張)에는 오와리(尾張)와 미노(美濃) 양 쪽을 오가며 무역을 하고 동시에 포목상인 우두머리로 있던 이토 소쥬로(伊藤宗十郎)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오다 정권과 직결된 쇼닌 쓰카사(렌자쿠 우두머리)였다.

이토 씨 같은 특권적인 상인이 있는 가운데, “기요스에는 시치로자에몬이라는 렌자쿠 영업자가 있었다(『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 그렇다면 렌자쿠 상인 시치로자에몬(스기하라)은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이를 검토하기 위해 또 다른 히데요시의 백부에 대해 살펴보자.

4. 히데요시 일가 : 질그릇 파는 백부

『기요스오키나모노가타리清須翁物語』, 『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에는 질그릇을 파는 히데요시의 백부, 마타에몬(又右衛門)이 등장한다.

지모쿠지(甚目寺) 도호쿠마치(東北町)에 질그릇을 파는 마타에몬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는 히데요시의 백부였다. 히데요시가 처음으로 말이 필요했을 때, 그는 백부 마타에몬에게 말 한 필을 빌려달라고 했다. 마타에몬은 그것을 거절하며 너 같은 더부살이하는 친척은 귀찮다고 말했다. 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며 결국에는 말도 빌려주지 않았다. (중략)

얼마 후, 하이바라카가노카미(埴原加賀守)가 히데요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모쿠지 도호쿠마치에서 질그릇을 파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극빈한 그가 나는 불쌍하다. 내가 그 자를 당신에게 소개해도 좋은가?” 히데요시가 대답했다.

“그는 오래 전에 나에게 말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가 나에게 말을 빌려주었더라면 그는 지금 자신의 영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백성이니 그에게 쌀 다섯 석을 주겠습니다. 그가 나의 백부이든 질그릇 장수든 아니면 떡 장사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히데요시는 자신의 백부를 냉혹하게 대했다.

질그릇을 파는 백부는 히데요시가 말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더부살이를 친척으로 두면 곤란하다. 평소에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고 험담을 하면서 결국 말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기요스(清須) 죠다이(城代, 성주를 대신하여 성을 지키는 사람) 하이바라카가노카미(埴原加賀守)가 “극빈한 자가 질그릇을 팔고 있다. 초라하고 가여운 자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는가”하고 히데요시에게 물었지만 히데요시는 “그 사람은 옛날에 말을 빌려주지 않았다. 말만 빌려줬더라도 지금은 땅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하고 말하며 백부이건 질그릇 장수건 상관없다고 말하며 만나려 하지 않았다.

히데요시는 큰 그릇을 만든 마쓰바무라(松葉村)의 얇은뱅이 치쿠유(竹祐)에게는 쌀 열 석을 주었으나 백부에게는 고작 쌀 다섯 말만 주었다.(3斗俵이면 1석 5두)

자형에 해당하는 야스케(弥介)는 히데요시에게 말을 빌려주었다. 히데요시가 쓰나사시(綱差)였던 야스케에게 가서 밤색 털의 잡역 말을 빌리고자 했던 것이다. 안장은 있었지만 등자(두 발을 딛는 도구)는 없었다. 썩은 듯한 철제 등자(보통 등자는 목제이다)가 한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줄로 대신했다. 일행이 없었기 때문에 야스케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서라도 같이 갈까’하며 히데요시를 따랐다고 한다.

이처럼 히데요시는 친척이라면 모두 등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만을 등용했다. 오다의 가신이자 쓰나사시였던 야스케는 히데요시를 따랐다. 배신(陪臣)은 주군의 허락 없이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다. 쓰나사시의 직무를 버리고 히데요시의 가신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야스케는 이 때 이미 쓰나사시의 직무를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쓰나사시는 오토노코(乙之子)에서 기요스까지 왕복하거나 매사냥을 할 때 말을 필요로 했을 터이다. 그러나 잡역 말 한 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를 히데요시에게 넘기게 되면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조쿠큐오도와続鳩翁道話』 〈1863〉 ‘에치젠(越前)에서 농가 축사에 둔 말을 모두 잡역에 쓰는 것으로 목마牧馬이다.)

무사에게 말을 필수품이다. 적진에 말을 달려 나아감으로서 보병(잡병)을 쫓아버릴 수 있다. 말이 없다면 기마무사에게 쫓기는 졸병이 될 수밖에 없고 전사할 확률도 높아진다. 말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히데요시는 전투에 꼭 필요한 말을 빌려야만 했다. 야스케의 말은 한쪽에만 등자를 가지고 있었다. 승용 말이 아니라 안장에 물건을 양쪽으로 실어 옮기는 하찮은 말이었을 것이다.

히데요시의 백부 마타에몬은 질그릇 장수였다. 이러한 직업은 『시치주이치반쇼쿠닌우타아와세七十一番職人歌合』에 등장한다. 이시이 스스무 씨는 『중세의 형태』에서는 「단자에몬유이쇼가키彈左衛門由緒書」라는 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질그릇 장수는 자신의 말을 빌려줄 수 없었다. 질그릇을 구입하거나 팔러 갈 때 반드시 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히데요시를 따랐던 야스케와 달랐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렌자쿠 상인 시치로자에몬(스기하라 이에쓰구)은 수단이나 격이 위에 있었다. 나가하마 입성 때, 처음부터 후하게 대접받았다. 자신의 십분의 일 녹을 주고 가로로 삼았다. 시치로자에몬은 그때까지 꽤

많은 지원을 했을 터이며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었다. 야스케 이상으로 많은 자산이 있었다. 아마 말을 여러 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렌자쿠 상인이었지만 이토 지배 하에서 그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극단적으로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었을 것이다.

렌자쿠초(連尺町, 連雀町)라는 지명은 마을 이름으로 남아있다, 신흥 벼락부자였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차별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렌자쿠 상인의 우두머리는 시가지(城下)에서 성 정면 입구(오오테大手)에 가게를 차리고 렌자쿠 상인을 관리했다. 우두머리 밑의 종업원도 그 일각에서 가게를 열었다. 시치로자에몬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시장에서 볼품없는 물건을 파는, 그래서 천시당하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5. 주변의 인물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모두 능력을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히데요시는 신분과 상관없이 등용되었다. 기요스(清須) 죠다이(城代, 성주를 대신하여 성을 지키는 사람) 하이바라가카노가미(埴原加賀守)도 『소후모노가타리祖父物語』에서는 ‘고슈(甲州)의 순례자이다’, 『다이코키太閤記』에서는 신슈(信州) 출신의 순례자였다고 되어 있다.

이 장(10 장)의 서두에서 모리타 요시노리(盛田嘉徳) 씨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다. 히데요시 밑에는 천민계급 출신이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있었다. 친척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는 ‘목공의 자식’(福島記 < 『지신슈知新集』 卷 2 >)이라고도, ‘나무통 장사집의 자식’이라고도 되어 있다. 나무통 장사집의 자식이란 속설이지만 목공의 자식과 거의 같은 뜻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대나무로 나무통의 테를 두르는 일을 하거나 때로는 관을 짜기도 했다. 『에이쿄로쿠盈筐録』 162 권에는 ‘아버지는 요에몬(与衛門)이라 하여 비천한 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가토 기요마사는 ‘아노(穴生) 석공의 자식’이라는 기술이 『고로모노가타리古老物語』에 보인다. 아노(穴生)는 석공이지만 산조(散所, 자기가 직접 속한 관청에 나가지 않고, 撰関·大臣·大将家 등에 종속되어 잡일에 종사하는 사람)라는 말도 있었고(이 책 p.410), 개인의 이름이 아닌 ‘이즈모出雲’, ‘스루가駿河’, ‘이즈伊豆’와 같이 나라 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천시당하고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이는 기요마사의 기량으로 본다면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아베 코조(阿部弘蔵)의 『일본노예사日本奴隸史』(1926, 第 8 章)는 『조쿠부케칸단続武家閑談』 가운데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에 사나다 노부유키(真田信幸)의 동생 유키무라(幸村)를 비난하는 말 중 “너는 에타 오타니(大谷)를 따르라”하고 격노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에타 오타니(大谷)란 오타니 요시쓰구(大谷吉継)를 지칭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그는 나병환자였지만 에타로 혼동되었다. 아무튼 히데요시 주위에는 최하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가하라 케이지(永原慶二)의 글 「중세사회의 전개와 피차별신분론中世社会の展開と被差別身分論」(『部落史の研究』前近代編)을 보면, 피혁 가공 종사자의 우두머리는 가모리 혹은 가몬(掃部)이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오이 가모리에 대해 보았다. 가모리라고 하면 호리 히데마사(堀秀政)의 아버지(하데시게, 백부 모두)도 할아버지도 모두 가모리였다.(『織田信長家臣人名辞典』) 호리 규타로(堀久太郎, 히데마사)가 천민에게 군사지원을 받은 것은 와키타 오사무(脇田修)의 『가와하라마키모노노세카이河原巻物の世界』(p.175)에도 지적이 있다. 천민에게 군사 지원을 받은 것 자체는 모든 다이묘가 마찬가지이다.

하치스카고로쿠(蜂須賀小六, 히데요시의 가신)가 부랑자의 우두머리였던 것은 『다이코키太閤記』와 같은 속서(俗書)에만 기술되어 있다. 와타나베 요스케의 『하치스카고로쿠마사가쓰蜂須賀小六正勝』(1929)와 같이 도적 행위설을 완전 부정하는 논자도 있지만 다이묘 권력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날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와타나베가 속설을 부정할 가장 큰 근거는 덴쇼 17(1589)년 경에 야하기가와(矢作川) 강은 나룻배로 건너갔고 게이초(慶長)5, 6(1600-1601)년이 되어야 비로소 다리가 놓인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겐무(建武) 2(1335)년에 이미 다리는 있었다.(『다이코키太閤記』) 원래 다리는 반복적으로 건설되고 유실되기도 한다. 덴쇼 17(1589)년에 다리가 없었다고 해서 그 40년 전인 덴분(天文) 20(1551)년 에도 다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다리가 아니더라도 접점을 가질 수도 있다. 『다이코키太閤記』에서는 ‘밤에 도적질하는 자 가운데는 수단이 좋은 병사가 많이 있었다’, 그 가운데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로쿠를 포함하여 열 명 정도를 열거하고 있다. 특이한 무장집단의 우두머리 하치스카고로쿠와 주종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히데요시는 미노 지방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하라다 토모히코(原田伴彦)의 『일본봉건도시연구日本封建都市研究』(1957) 이후, 앞에서 인용한 도요타 타케시, 나가하라 케이지 등의 논고, 그리고 시바쓰지 순로쿠(柴辻俊六), 이시이 등의 연구에 의해 전국시대 다이묘와 피차별민 사이의 관계는 밝혀졌다. 가와타는 특권 장인처럼 보이지만 갑옷, 마구, 향, 피혁 등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특수 부대와 같은 무력집단 그 자체이기도 했다. 히데요시의 조선출병이나 다카덴진쥬(高天神城), 스와하라쥬(諏訪原城)에서 사용된 공성용구 거북 껍질은 전차(戰車)에 소가죽을 씌워 방탄 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구로다가후黒田家譜」외 『고지루이엔古事類苑』兵事部) 노부나가 히데요시 군단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들 가와타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들의 조력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것은 군인과 가와타, 귀와 천, 어디에 그 구분이 있는지를 정도였다. 권력구조에는 귀천이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다. 기량과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탈천(脫賤)’은 곤란한 일이 아니었다. 무력과 재력, 그것이 신분의 유동을 촉발시켰다.